

國家發展과 大學教育의 課題



韓國教育開發院長 洪 雄 善

I. 國家發展과 大學發展

일반적으로 국가가 발전할수록 교육이 발전하고, 교육이 발전될수록 국가가 발전한다고 볼 수 있어, 국가발전과 교육발전과는 相補的인 函數關係를 형성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육발전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 여러 부문에서의 효율적인 지원과 連繫體制가 유지되어야만 가능하며 국가발전이란 교육받은 人力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 發展을 위한 원동력으로 활용될 때에 비로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國家發展의 개념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반적인 체제에서 上向的인 變化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규정할 때, 이러한 국가 발전은 교육발전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기능적인 지원이 있을 때에만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러한 함수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교육을 통하여 民主政治의 성숙·발달이 기대되고, 민주적인 政治風土가 조성됨으로써 교육의 自律的·專門的인 성장·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의 결과로 우수한 產業人力이 공급될 수 있고, 科學과 生産技術의 발전이 가능하며, 經濟的 價値觀 내지는 成就動機 등이 신장되어 經濟發展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러한 경제발전은

결과적으로 教育財政 投資의 增大를 가져와 教育福祉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교육발전은 동시에 사회의 統合化 내지는 共同體意識을 형성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그리하여 民族文化의 暢達 및 그 正體性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 건전한 社會風土가 조성되어 교육은 다시 새롭게 발전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教育發展은 國家發展에 크게 기여하게 되며, 그러한 기여는 곧바로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再投入된다. 그리고 이러한 教育發展 중에서도 大學教育의 發展은 國家發展에 더욱 큰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大學教育을 받은 사람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先導者的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의 결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변모·발전해 가는 사회 속에서 지속적인 國家發展이 이루어지려면 대학교육의 役割과 機能이 한층 더 강조되어야 하며, 국가발전과 대학교육발전의 相補的인 函數關係가 더욱 긴밀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II. 未來社會와 大學教育의 役割

現代社會의 특징은 사회의 모든 측면이 급격하게 그리고 多元的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데 있

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변화 추세를 미래사회에 투사해 본다면 그 변화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리라 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主導하고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適應하도록 인간을 지도·육성하는 것이 바로 교육의 역할이자 大學教育의 주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대학교육은 그동안 개인의 自我實現을 가능케 하고, 동시에 國家發展의 구심체로서 社會發展을 지속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 사회발전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대학교육에 거는 기대는 더욱 커질 것이고, 이에 따라 대학교육의 역할도 한층 더 다양화되고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앞으로 어떠한 樣相과 形態로 변모될 것인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오늘날까지 거처온 과정을 돌이켜 보고 현재 국내외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변화추세에 비추어 볼 때, 머지 않은 장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예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의 課題도 추출할 수가 있을 것이다.

우선 國際政治 및 外交의인 차원에서 국내외적인 상황의 변화를 살펴볼 때, 세계 각국이 實利를 추구하는 외교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國際政治의 양상은 현재보다 훨씬 다원화되고 복잡 다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는 과거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했던 盟邦間의 결속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南北間의 긴장은 한층 더 高潮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에 능동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남북대결에서의 승리를 위한 民主政治의 力量을 발휘하고, 民主主義 體制의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함양시키며, 民主福祉社會를 건설하기 위한 국민 정신교육의 강화가 절실히 요청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사회는 조만간에 선진국들이 경험하고 있는 高度의 產業社會로 이행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 경제는 賦存資源이 빈약한 가운데서도 교육받은 勞動力에 크게 의존하여 오늘날과 같은 꾸준한 成長·發展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產業構造가 더욱 고도화됨에 따라 수요에 따른

人力供給 못지 않게 雇傭 및 人力構造의 변화가 불가피하고, 人力의 高級化·專門化가 한층 더 절실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優秀人力의 開發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에 거는 기대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高度產業社會의 건설과정에서 科學·技術의 研究·開發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두뇌경쟁에 대처하고 연구·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技術集約產業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도 教育, 특히 大學教育에 거는 기대는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현재 지향하고 있는 高度產業社會는 풍요한 未來를 약속하지만 그 移行過程에서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機械化와 都市化 등으로 말미암은 人間疎外, 物質萬能 風潮가 만연되어 전통적인 文化的·道德的 價値가 퇴색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산업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인간소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知識傳達 機能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원만한 人間性을 함양시키기 위한 全人教育體制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Ⅲ. 大學教育의 發展課題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國家·社會가 변모·발전하기 위하여는 大學教育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급변하는 사회에서 대학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스스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전통적인 대학에서는 教授 및 研究가 주된 기능이 되어 왔다. 그러나 대학이 多元化되고 大規模化되면서 그 기능은 教授·研究機能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社會奉仕 機能과 學生指導 機能까지도 포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다원화된 대학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理念과 目標가 再定立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가 더욱 발전함에 따라 知識·情報은 계속하여 급격히 증가될 것이므로 한정된 학교교육만으로는 未來社會에서의 적응이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短命이 예상되는 지식과 기술을 갱신하고,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

하기 쉬운 價値觀의 혼란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학교를 떠난 사람들을 위한 繼續敎育의 실시가 필연적으로 요망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放送通信大學의 확충과 開放大學의 설치는 平生敎育體制를 지향하는 大學敎育이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사업들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大學敎育은 정규대학 敎育을 더욱 精銳化하면서, 동시에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 등의 敎育機會를 확대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大學敎育의 機會擴大와 秀越性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大學敎育의 成果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期待水準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으며 學問發展의 變化週期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 프로그램은 획일적으로 운영되거나 정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교육 프로그램의 신축성 있는 편성과 운영의 세신이 요망된다.

한편, 최근 대학생수는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나 대학은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敎授要員과 施設, 財政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敎育課程이 大單位 講座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수 대 학생의 비율도 계속 악화되면서 교수의 강의 및 학생지도 부담이 과중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大學敎育의 效果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교수들의 敎授·研究活動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수·연구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근무부담이 適正基準을 초과하지 않도록 敎授要員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의 研究機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研究·開發을 위한 정부의 투자가 증대되어야 한다. 특히 연구·개발능력의 향상과 관련하여 大學內 研究所를 활성화하고, 實驗·實習機器의 확충 등을 위한 行·財政

的 支援體制의 강화와 產學協同體制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이 고도의 知識과 學問의 結晶體라는 사실과 대학마다 전통과 특성에 따라 신장·발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대학의 自律性과 專門性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이 대학 자체의 政策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力量을 최대한으로 배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政策審議機構 등을 활용하고 行政·管理도 專門化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Ⅳ. 맺는 말

大學敎育은 국가발전과 不可分의 관계에 있다. 대학교육의 결과는 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발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가 사회의 발전은 대학교육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그러므로 국가발전은 大學의 발전 정도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大學과 國家發展간의 관계는 미래사회가 高度産業社會로 접어들면서 더욱 밀착되어질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대학에 대한 役割과 期待는 앞으로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急變하는 社會 속에서, 대학이 새로운 期待에 부응하면서 선도적 役割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학 자체의 체질 개선과 함께 대학교육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改革事業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고, 정부는 대학의 개혁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行·財政의 支援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